

대학생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현은민*

¹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Eun Min Hyun¹*

¹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실험집단 11명과 통제집단 13명이며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 1회씩 8회의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여 통제집단과 사전, 사후검사 점수 차이를 비교하여 효과를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모수 통계방법인 χ^2 test, Mann-Whitney U 검정, Wilcoxon rank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살생각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 death education program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on the attitudes toward death, suicidal ideation and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4 students, 11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3 in the control group. The death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and practic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for 8 sessions. The death education program reduced the negative attitude significantly toward death, and increased the meaning in life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Suicidal ideation was also decreased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death and meaning in lif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ut not in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Death education program, Attitude toward death, Suicidal ideation, Meaning in lif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한 과정이다. 개인의 일생에서 죽음은 삶의 과정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는 사건으로서 인간의 태어남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죽음은 삶 안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삶과 떼어낼 수 없는 삶의 현실이며 삶을 총체적으로 완결 짓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1]. 이러한 삶과 죽음의 분리될 수 없는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하고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본능적으로 기피하고자 한다[2]. 죽음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되고 회피되는 모순적인 대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보편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죽음은 상상도 이해도 못하고, 이성적·지적으로는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감정적·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3].

더욱이 현대사회는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사고와 질병, 자살, 자연재해 등 죽음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 대학생이 속해 있는 20대 연령층의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본 논문은 2011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 Min Hyun(Andong Univ.)

Tel: +82-54-820-5486 email: emh@andong.ac.kr

Received June 19, 2014

Revised (1st July 4, 2014, 2nd July 9, 2014)

Accepted July 10, 2014

차지하고 있다[4].

인간발달 단계상 대학생 시기는 정체감 형성, 사회적·정치적 인식 증가,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재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5]. 대학생이 속해있는 늦은 청소년 시기와 성인초기는 흔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만한 성인으로서의 인생전환과의 투쟁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때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자살을 고려하거나 충동적인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6].

청소년 및 대학생들은 전형적으로 죽음을 부정하고, 특히 자기 자신의 죽음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죽음에 대한 걱정을 많이 경험하며 죽음에 대한 의식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지만, 자살의 충동을 제일 많이 느끼는 세대이다[7]. Meyer는 연령에 따른 죽음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기는 생동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 더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라고 설명하였다[8].

최근 웰다잉과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한 사회적 문제로 자살이 대두되면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새롭게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 죽음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생명의 문제를 다루므로 모든 연령층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9] 선진국에서는 연령별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0]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필연적이고 그러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죽음이다. 교육이 삶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면, 삶은 죽음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11] 죽음은 인간의 성장 및 발달의 마지막 단계로서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성숙한 자세로 죽음을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죽음교육을 통하여 새롭게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로 제공될 수 있다고 본다.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삶의 의미와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죽음은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교육은 삶의 가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며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개인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 갈 수 있게 된다[11].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화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노인 대상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청소년이나 대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생 대상 죽음준비교육은 주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호스피스 간호를 실시하는 간호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모든 대학생에게 죽음준비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극히 부족하다. 청년기는 생리적인 면과 심리적 측면, 그리고 인지적 측면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12] 이 시기에 죽음준비교육을 통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여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중요한 가치를 정립하도록 도와주고 자살이나 가족의 죽음 관련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의 제공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서 [9, 13] 개인 삶에 대한 태도 변화와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뿐 아니라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돕는다[14].

그러므로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대학생 시기에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현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청년층의 자살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죽음준비교육은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자살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자살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 삶의 의미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삶의 의미에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목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러한 삶의 자세는 자살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문제

첫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자살생각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삶의 의미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1.3 연구가설

가설1.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2.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자살생각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3.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삶의 의미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설계 모형은 Fig. 1과 같다.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1	X	E2	C1	C2	

[Fig. 1] Research design model

E1, C1 : Attitude toward death, Suicidal ideation Meaning in life Pre-test

X : Death education program

E2, C2 : Attitude toward death, Suicidal ideation Meaning in life Post-test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지역의 일개 대학교 가족학 및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소개 한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24명을 모집하였다. 성별과 나이가 비교적 유사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12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고 프로그램 시작 전

실험집단의 한 학생이 지속적 교육 참여가 어렵겠다고 통제집단을 희망하여 실험집단 11명과 통제집단 13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죽음에 대한 태도

Collett와 Lester[15]가 제작한 FODS(Fear of Death Scale)를 Nam[16]이 한국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죽음에 대한 태도 척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회피, 죽음금지, 죽음슬픔의 네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과 회피 등 죽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로 나타났다.

2.3.2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Reynolds[17]가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IQ)를 Park[18]이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선정한 14문항을 바탕으로 Choi 와 Kim[19]이 대학생에 맞게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2.3.3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Steger, Frazier, Oishi와 Kaller[20]가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를 Won, Kim 과 Kwon[21]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미발견과 의미추구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문항에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고 의미발견 Cronbach's $\alpha = .83$, 의미추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2.4 연구진행 절차

2.4.1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구성

본 대학생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죽음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외국의 죽음교육모델의 고찰을 통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기초로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영

역의 교육내용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고[22, 23] 대학생 대상 교육이므로 죽음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두면서 죽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Corr[22]의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영역의 구분에 맞추어 내용 구성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지적 영역인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에 이르는 단계, 죽어가는 사람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이해, 사별과 애도, 장례문화와 절차를 포함하였고 정서적 영역으로서 죽음불안에 대한 태도, 개인적 사별경험 다루기, 임종간호와 연명치료의 딜레마, 삶의 의미 발견하기를, 실천적 영역으로 사별과 비탄에 대해 돕는법, 자신의 장례식 준비, 자살예방, 가치와 삶의 목표 탐색을 주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대학생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8회로 구성되었고 1회기는 죽음준비교육의 이해로서 집단의 친밀감 형성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죽음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므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2회기 죽음과 삶 주제에서는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죽음불안의 행동적 표현방식, 자신의 감정과 반응, 죽음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대해 알게 하였다. 3회기 죽음의 과정과 임종간호, 연명치료 주제에서는 죽음의 단계를 이해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주된 욕구 이해와 각 단계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게 하였고 임종간호와 연명치료의 문제점과 딜레마를 다루었다. 4회기는 자살예방을 주제로 청소년과 대학생의 높은 자살률과 자살 사례 및 유가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살의 위험요인과 자살징후, 돕는법을 알고 자살이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5회기는 사별과 애도를 주제로 사별 후 경험하는 애도 과정을 알고 비탄에 빠졌을 때 스스로 돕는 법과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알도록 하였다. 6회기는 장례문화와 상례, 제례의 장법에 대해 알고 자신의 장례식을 그려보도록 하여 미래의 죽음준비를 해보게 하였고 유서쓰기와 묘비명 쓰기의 활동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였다. 7회기는 삶의 의미 찾기 주제로 삶의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8회기는 가치와 삶의 목표를 주제로 자신의 핵심가치를 탐색하여 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삶의 목표를 세워보게 하였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자신의 강점과 긍정에너지를 인식하게 하였다.

2.4.2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씩 8회기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회기별 2시간 30분-3시간 정도를 소요시간으로 하였다. 교육방법은 크게 주제별 강의와 비디오 시청, 사례분석, 토론과 발표 등의 활동과 종결, 그리고 과제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첫 회기에 사전검사를 마지막 회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도 동일한 시기에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사전사후 차이검증으로 효과를 평가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처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가 작아서 비모수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χ^2 검증을 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와 사전-사후 변화량의 차이검증에는 Mann-Whitney U 검증, 사전-사후 차이 검증에는 Wilcoxon rank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사

3.1.1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에서 실험집단은 여자가 54.5%, 남자가 45.5%였으며, 통제집단은 남자가 53.8%, 여자가 46.2%로 나타났다. 연령은 두 집단 모두 20세가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과 3학년이 많고 두 집단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무교가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건강하다와 매우 건강하다가 같게 나타났다.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는 실험집단은 진로문제가 가장 많았고, 통제집단은 진로문제가 없다가 같게 나타났다. 죽음경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between Two Group

Demographics		Groups		Total N(%)	χ^2	p
		Exp. N(%)	Cont. N(%)			
Sex	Male	5(45.5)	7(53.8)	12(50.0)	.168	.682
	Female	6(54.5)	6(46.2)	12(50.0)		
Age	18	2(18.2)	1(7.7)	3(12.5)	3.079	.688
	19	1(9.1)	4(30.8)	5(20.8)		
	20	6(54.5)	5(38.5)	11(45.8)		
	21	1(9.1)	1(7.7)	2(8.3)		
	23	1(9.1)	1(7.7)	2(8.3)		
	24	0(0)	1(7.7)	1(4.2)		
Grade	Freshman	5(45.5)	5(38.5)	10(41.7)	.917	.632
	Sophomore	0(0)	1(7.7)	1(4.2)		
	Junior	6(54.5)	7(53.8)	13(54.2)		
Religion	Christian	1(9.1)	3(23.1)	4(16.7)	1.234	.540
	Budism	1(9.1)	2(15.4)	3(12.5)		
	None	9(81.8)	8(61.5)	17(70.8)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3(27.3)	3(23.1)	6(25.0)	2.853	.583
	Healthy	6(54.5)	6(46.2)	12(50.0)		
	Moderate	1(9.1)	3(23.1)	4(16.7)		
	Poor	1(9.1)	0(0)	1(4.2)		
	Very Poor	0(0)	1(7.7)	1(4.2)		
Difficulty	None	4(36.4)	4(30.8)	8(33.3)	4.263	.512
	Economic	0(0)	1(7.7)	1(4.2)		
	Disease	1(9.1)	1(7.7)	2(8.3)		
	Family conflict	0(0)	1(7.7)	1(4.2)		
	Career	6(54.5)	4(30.8)	10(41.7)		
	Mental	0(0)	2(15.4)	2(8.3)		
Death Experience	Have	10(90.9)	10(76.9)	20(83.3)	.839	.360
	None	1(9.1)	3(23.1)	4(16.7)		
Death Education	None	11(100.0)	13(100.0)	24(100.0)	-	-

으며 두 집단 모두 죽음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3.1.2 주요변인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 자살생각, 삶의 의미에 대한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3.06, 통제집단이 2.89로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931$, $p>.05$). 자살생각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도 실험집단이 1.90, 통제집단이 2.1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z=-.726$, $p>.05$), 삶의 의미도 실험집단이 3.25, 통제집단이 3.29로 비슷한 수준이며($Z=-.145$, $p>.05$) 하위영역인 의미발견, 의미추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실험 처치 전의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Table 2] Homogeneity of Attitude toward Death, Suicidal Ideation, Meaning in Life in Pretest

Variables	Groups	N	M	SD	u	z	p
Attitude toward Death	Exp.	11	3.06	.35	55.500	-.931	.352
	Cont.	13	2.89	.38			
Suicidal Ideation	Exp.	11	1.90	.45	59.000	-.726	.468
	Cont.	13	2.18	.81			
Presence of Meaning	Exp.	11	2.96	.78	62.500	-.524	.600
	Cont.	13	3.12	.67			
Search for Meaning	Exp.	11	3.53	.57	63.500	-.468	.639
	Cont.	13	3.46	.59			
Meaning in Life	Exp.	11	3.25	.59	69.000	-.145	.885
	Cont.	13	3.29	.59			

3.2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 자살생각, 삶의 의미에 변화가 있는지 사전-사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signed rank 검증을 실시하였다.

3.2.1 제 1가설

죽음준비교육을 실시 한 후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사전 3.06점에서 사후 2.45점으로, 통제집단은 사전 2.89점에서 사후 2.84점으로 실험집단의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z=-2.938, p<.01$)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Attitude toward Death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z	p
		M	SD	M	SD		
Attitude toward Death	Exp.	3.06	.35	2.45	.36	-2.938**	.003
	Cont.	2.89	.38	2.84	.46		

3.2.2 제 2가설

죽음준비교육 실시 후 실험집단의 자살생각은 사전 1.90점에서 1.73점으로, 통제집단은 사전 2.18점에서 2.23점으로 별 변화가 없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z=-1.336, p>.01$). 따라서 제 2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Suicidal Ideation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z	p
		M	SD	M	SD		
Suicidal Ideation	Exp.	1.90	.45	1.73	.53	-1.336	.182
	Cont.	2.18	.81	2.23	.73		

3.2.3 제 3가설

죽음준비교육 실시 후 실험집단의 삶의 의미 점수는 사전 3.25점에서 사후 3.97점으로, 통제집단은 사전 3.29점에서 사후 3.2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z=-2.809, p<.01$) 하위요인인 의미발견도 실험집단이 사전 2.96점에서 사후 3.58점으로 통제집단은 사전 3.12점에서 사후 3.05점으로 유의한 차이($z=-2.016, p<.05$)가 나타났다 의미추구도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3.53점에서 사후 4.36점으로 통제집단은 사전 3.46점에서 사후 3.52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z=-2.549, p<.05$). 따라서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Meaning in Life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z	p
		M	SD	M	SD		
Presence of Meaning	Exp.	2.96	.78	3.58	.73	-2.016*	.044
	Cont.	3.12	.67	3.05	.67		
Search for Meaning	Exp.	3.53	.57	4.36	.51	-2.549*	.011
	Cont.	3.46	.59	3.52	.58		
Meaning in Life	Exp.	3.25	.59	3.97	.48	-2.809**	.005
	Cont.	3.29	.59	3.28	.54		

이러한 결과는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참여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 그리고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총 8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주 1회 매 2시간 30분-3시간씩 진행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알기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자살생각은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삶의 의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죽음을 수용하고 덜 두려워하고 미래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태도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에 효과를 나타낸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죽음교육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죽음 불안과 회피 정도가 낮아졌음을 나타낸다[11, 24]. 이는 평소 죽음에 대해 무관심하고 회피하던 대학생들이 죽음교육을 통하여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죽음을 두려워만 하기보다 수용하는 태도로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살생각은 교육 후 점수가 조금 낮아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자살생각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25, 26]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자살생각이 감소하지 않은 연구결과[24]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자의 연구[26]는 자살관련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제적인 자살충동 발표와 자살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인지가 자살생각을 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후자의 연구[24]에서는 자살에 대한 태도는 내·외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단기간의 죽음교육이 자살태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과 참여자들의 자살태도에서 긍정적 성향의 가능성을 꼽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자살생각이 교육 전에도 비교적 낮게 나타나 자살위험이 낮았던 점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진로문제이거나 없다고 보고하여 스트레스 수준도 높지 않고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위험의 경험도 거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의 자살률이 높고 대학생 대상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살예방교육은 필수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할 주제로 생각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교육이 삶의 의미에 효과를 나타낸 결과는 죽음준비교육은 결국 삶의 교육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삶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Kubler-Ross[27]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삶 만큼 중요한 것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동기유발, 적극적 사회참여, 사회적 통합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자원이며 젊은 층에게 긍정적 발달과 능력을 도모한다[28].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자살생각,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24명으로 11명의 실험집단과 13명의 통제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집단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터 4월 24일에 걸쳐 8회기의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자살생각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으나 자살생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본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므로 대학생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참여자가 수가 적고 특정 전공에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전공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전환기의 대학생들이 죽음교육을 통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보다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하위요인별로 죽음불안, 죽음회피, 죽음금지, 죽음슬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는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복잡한 인식 영역이므로 개념화하거나 적절한 측정이 어렵고 감정적 요소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도구의 개발과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연구에서 자살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J. Lee, G. H. Jo, H.J. Lee. *Understanding Thanatology*. Seoul. Hakjisa, 2006.
- [2] B. R. Jung.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preparatory education of death. *Kyungpook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9*, pp. 49-60, 2006.
- [3] M. J.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of the elderly and attitude toward death.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1994.
- [4] Statistics Korea. The cause-specific death statistics. 2010.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 [5]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Company, 1968.
- [6] Y. K. Min. Evaluation on suicidal risk factors and suicidal though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31*, pp. 31-52. 2005.
- [7] J. Y. Lee. The youth's perception of death and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 19*, pp. 39-56 2004.
- [8] J. E. Meyer. *Death and neuro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 Press. 1973.
- [9] S. Higgins. Death education in primary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spirituality, 4*, pp. 77-99. 1999. DOI: <http://dx.doi.org/10.1080/1364436990040107>
- [10] C. Becker. Death education and religion in schools and moder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 pp. 3-22. 2004..
- [11] S. N. Kim, S. O. Choi, J. J. Lee, & K. I. Shin. Effects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 pp. 141-153. 2005.
- [12] K. A. Kang, S. J. Kim, M. K. Song, & S. S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n instrument for adolescents meaning in lif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pp. 625-634. 2007.
- [13] K. H. Jo, H. J. Lee, & Y. J. Le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yber lectures about dea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pp. 442-452. 2007.
- [14] H. J. Jo.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 Sang University. 2004.
- [15] N. Mogi, Y. Masuda, A. Hattori, M. Naito, A. Iguchi, & K. Uemura, Effect of death education on self-determination in medical treatment in university students.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3*, pp. 200-207. 2003. DOI: <http://dx.doi.org/10.1111/j.1444-1586.2003.00087.x>
- [16] L. J. Collet, & D. Lester.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Vol 72*, pp. 179-18, 1969. DOI: <http://dx.doi.org/10.1080/00223980.1969.10543496>
- [17] H. S. Nam. Analysis on the adult's attitude toward death and need for death preparation education.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1999.

- [17] W. M. Reynold.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8.
- [18] B. G. par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6, No. 3*, pp. 505-522. 2007.
DOI: <http://dx.doi.org/10.5934/KJHE.2007.16.3.505>
- [19] S. O. Choi & S. N. Kim. Suicidal ideation and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90-199,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90>
- [20] M. F. Steger, P. Frazier, S. Oishi, & M. Kale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2004.
- [21] D. Won, K. H. Kim, S. J. Kwo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0, No. 2*. pp. 211-225, 2005.
- [22] C. A. Corr. Death education for adults. In Coreless, I. B. Germino, B. B. & Pittman, M. A.(Eds.), A challenge for liv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 Boston: Jones and Bartlett. 1995.
- [23] A. Deeken, Psychology of death and dying. Macmillan, 2002.
- [24] S. J. Shin. The effect of a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for death and suicide of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04.
- [25] J. T. Oh, Instruction for protecting of suicide. *Issues in East-Asian Philosophy, 15*, pp.230-246. 2006.
- [26] K. E. Chang.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s death orientation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0, No. 3*, pp. 423-437. 2012.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2.21.3.423>
- [27] Ku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A Touchstone Book. Macmillan M.
- [28] M. Błażek, & T. Besta., Self-concept clarity and religious orientations: Prediction of purpose in life and self-esteem.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 51, No.3*, pp 947-960, 2012.
DOI: <http://dx.doi.org/10.1007/s10943-010-9407-y>

현 은 민(Eun Min Hyun)

[정회원]



- 1992년 8월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가족사회학과 (가족학 박사)
- 1989년 3월 ~ 현재 :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 가족·노인복지